

광주 서구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입주자 稅감면·규제 개선 시급하다”

도시계획법 적용 제약 많아... 인근 2단지 입주도 차질

광주 서구 매월동 광주종합유통단지의 운영과 인근에 조성중인 2단지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 업체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법률 보완·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종합유통단지는 지난 1996년 농산물 도매시장, 기계공구단지, 자동차 부품단지 등으로 이뤄진 종합유통시설로 설립됐다.

광주종합유통단지는 당시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통단지'로 지

정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때문에 광주종합유통단지는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돼 입주자들에게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단지내 부대·편의 시설 설치도 제약받고 있다.

반면에 불과 6개월 뒤인 1996년 6월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이후에 문을 연 유통단지들은 부동산 취득·등록세 면제, 재산·종토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 법은 종합유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취득·등록세의 면제를 보

장해주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가량 대폭 할인해 주는 특례 조항을 담고 있으나 도시계획법은 이같은 조항이 전혀 없다.

더욱이 현재의 광주종합유통단지 인근에 조성중인 2단지도 도시계획법을 적용받아 입주자들에게 부과되는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도 입주 희망업체가 소수에 그치는 등 운영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9일 열리는 전국도시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 도시계획법 개정 안건을 대정부 건의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

설 방침이다. 시는 우선 신·구법의 적용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도시계획법상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유통단지 입주 업체에게 취득·등록세를 면제해주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 동안 5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통단지에 각종 편의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여경협 공동 '여성경제인 포럼'...김병술 무협광주·전남지부장 특강



21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여성경제인 포럼에서 참여회원들이 김병술 무협협회 지부장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경제위험 대처 능력 지역기업 생존 좌우”

김병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장은 “최근 스태그플레이션과 ‘9월 유동성 위기설’이 진정되는 국면이지만 경제 위험요인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회피하거나 통제해 지역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일보사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전남지회가 21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34회 여성경제인 포럼’에 강사로 나선 김 지부장은 ‘위험과 함께, 위험을 넘어서’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강연 서두에서 김 지부장은 주

요 경제지표와 관련, “국제유가와 곡물가 및 원자재가 등이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석유선물투기 등 투기금지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가파르던 국내 물가상승세가 한풀 꺾였다”면서 “또 외국인들의 주식 및 채권 매각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달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의 9월 유동성 위기설도 진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외의 위험요인이 말끔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잠복해있는 상태라는 게 김 지부장의 진단이다. 김 지부장은 “주거폭락, 부동산 가격락, 고물가 등 악재에다 급격한 핫머니 유입 등이 예상돼 중국이 1990년대 한국과 유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면서 “이같은 위생요인이 국내경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다, 오는 9월 만기 도래하는 외국인 보유 국채에 투자한 자본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부장은 “오늘날의 기업환경은 지뢰밭길을 걸어가 는 것과 같다”면서 “그러나 위험은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기 때문에 위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피(Avoidance)·손실 통제(Loss Control)·보험(Insurance) 등의 방법을 통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개점 13주년 광주신세계 이장환 대표

“지역밀착 경영 확대 제 2도약 꿈 꾸겠다”

“광주신세계가 호남을 대표하는 유통업체로 자리잡은 것은 지역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꾸준히 만들어가며 노력해온 진화경영의 성과라고 봅니다.”

오는 25일로 개점 13주년을 맞는 ㈜광주신세계 이장환 대표는 “지역밀착경영이라는 개점 초기의 초심을 더욱 심화·확대시켜 제 2의 도약을 일궈내는 게 향후 광주신세계의 목표”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95년 개점 이후 지역상품 판로확대, 사회봉사, 문화에세이, 장학금 지급 등 4대 사업을 통해 지역과 끊임없는 교감을 이뤄내면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 발굴에 앞장서 지역업체로서는 처음으로 5개 중소기업의 입점시키는 디딤돌을 놓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6년 백화점과 이마트가 결합된 복합쇼핑타운을 구축한 것을 계기로, 지역과 지역 중소기업에 감동적인 소



이 대표는 “지난 2006년 백화점과 이마트가 결합된 복합쇼핑타운을 구축한 것을 계기로, 지역과 지역 중소기업에 감동적인 소

“광주신세계가 호남을 대표하는 유통업체로 자리잡은 것은 지역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꾸준히 만들어가며 노력해온 진화경영의 성과라고 봅니다.”

“지역밀착경영이라는 개점 초기의 초심을 더욱 심화·확대시켜 제 2의 도약을 일궈내는 게 향후 광주신세계의 목표”라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95년 개점 이후 지역상품 판로확대, 사회봉사, 문화에세이, 장학금 지급 등 4대 사업을 통해 지역과 끊임없는 교감을 이뤄내면서 놀라운 성장을 보여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평서비스를 제공해올해 매출외형상 전국 10위권 내 쇼핑타운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신세계타운은 인근 유스퀘어에 주차장을 비롯해 2천 400 규모의 영화관·음악홀·공연장 등이 들어서면서 문화와 쇼핑이 어우러지는 호남 최고의 명소로 발돋움하게 된다.

이 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지역 경영이라는 가치를 차분하게 진행하되 다른 업체나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시장모델을 창출하는데 고민해야 할 시기”라면서 “광주신세계가 광주를 넘어 우리나라의 토털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는 생활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자동차는 21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기아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사옥에서 준중형 세단 '포르테'의 신차발표회를 갖고 본격 시판에 나섰다.

기아 '포르테' 출격

'프리미엄 준중형 세단' 표방... 신차발표회 본격 시판

프리미엄 준중형 시대를 선언한 기아차 '포르테'가 탄생했다.

기아차 21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 사옥 1층에서 기자단·고객·기아차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중형 신차 포르테 보도발표회를 열고 본격 시판에 들어갔다.

포르테는 기아차가 2003년 11월 세라포 출시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준중형 신차로 ▲등급 최대 사이즈 ▲프리미엄 모델 1천705만~1천845만 원 ▲1.6 디젤 모델 1천695만~1천965만원이다.

차명인 '포르테(FORTE)'는 '강하

게'라는 뜻의 음악용어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준중형 시장의 새로운 강자 탄생'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아차는 국내 출시에 이어 올해 가을 동유럽과 중동·중남미 등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락시장인 북미시장에 수출할 계획이다.

가격은 ▲1.6 가솔린 일반형 모델 1천705만~1천711만 원 ▲1.6 가솔린 프리미엄 모델 1천705만~1천845만 원 ▲1.6 디젤 모델 1천695만~1천965만원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저축銀중앙회 17대 의장에 문병식씨

“서민들의 저축증대를 모색하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금융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 운영심의회에서 제 17대 새 의장에 선출된 문병식(72·시진) 광주 창업저축은행장은 “기존의 여수선 업무 외에 업계 공동 투자, 이익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해 저축은행이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 의장은 “지난 72년 신용금융 창립 이후 36년간 저축은행 CEO로 활동하면서 저축은행 발전에 기여한 공



문 의장은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광주·전남지부장과 광주지방법원 가사·민사조정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산업단지공단 서남본부장

양성훈씨 선임



양성훈(54) 한국산업단지공단 감사실장이 21일 서남지역본부장에 선임됐다.

선출되고 조선대를 누르고 본부장은 1981년 공단에 입사해 중부지역본부 팀장, 본사 총무행정처장, 본사 감사실장 등을 거쳤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표: 심봉규 (현충로동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 회장
·전 호남대학교 행정고학원 제2대 총장수석학장
·전 시정발전위원회 위원장(2기) 정책자문
·전 권선위원(2기)위원장
·전 서광주건설사 자문위원장

·전 대한공인회계사협회 광주지부장
·현 한국공인회계사협회 이사
·26-11지구 주민자치위원(2기)수석위원
·33대위원장
·현 35-81지구 시민위원

해령법률경매
T: (062)225-2665 H.P: 011-605-7777 위치: 법원정묘앞

지역	소재지	인근	토지/건물(㎡)	면적	건평	최대가
서구	창곡동	해령대리	254/98	192㎡	192㎡	1억 9천 7백 원
	창곡동	해령대리	188/155	192㎡	72㎡	1억 9천 원
	창곡동	해령대리	289/222	192㎡	192㎡	1억 9천 원
	창곡동	해령대리	270/217	291㎡	192㎡	1억 9천 원
	창곡동	해령대리	155/146	68㎡	68㎡	8천 원
	창곡동	해령대리	363/259	192㎡	192㎡	1억 9천 원
	창곡동	해령대리	135/144	192㎡	72㎡	1억 9천 원
	창곡동	해령대리	228/150	192㎡	192㎡	1억 9천 원
	창곡동	해령대리	162/174	192㎡	72㎡	1억 9천 원
	창곡동	해령대리	153/160	192㎡	68㎡	1억 9천 원
남구	우산동	우산동	149/96	78㎡	48㎡	4천 원
	우산동	우산동	131/144	192㎡	68㎡	4천 원
	우산동	우산동	188/231	192㎡	43㎡	4천 원
	우산동	우산동	150/141	68㎡	68㎡	4천 원
	우산동	우산동	131/136	68㎡	68㎡	4천 원
	우산동	우산동	198/158	42㎡	32㎡	3천 원
	우산동	우산동	181/82	68㎡	68㎡	3천 원
	우산동	우산동	1106/382	291㎡	192㎡	2천 원
	우산동	우산동				
	우산동	우산동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일 8월 30일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 시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수강료 국가 지원

고용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